

# 여천실고 탁구 날아 오르다

### 회장기 중·고탁구 단체전, 대광고 4-0 완파 창단 5개월만에 우승...조경환은 3관왕 올라

신생팀 여천실업고탁구팀이 조경환(1년)의 전관왕 맹활약에 힘입어 창단 5개월 만에 전국 정상에 오르는 돌풍을 일으켰다.

여천실업고는 9일 충남 청양군민체육관에서 막을 내린 제47회 회장기 중·고학생탁구대회 단체전에서 대광고를 4-0으로 제압하고 우승했다. 이로써 지난 4월 창단한 여천실업고는 불과 5개월만에 전국의 '탁구강호'들을 뿌리치고 최강의 자리에 오르는 영예를 차지했다. 또한 조경환은 단체전 뿐만 아니라 개인 단식·개인복식까지 휩쓰는 선전을 펼쳐 대회 전관왕의 기쁨도 함께 누렸다.

주니어국가대표상비군인 조경환은 이날 개인단식 결승에서 대광고 김관경을 맞아 드라이브 신제공격으로 시종 우세한 경기를 펼친 끝에 3-0(11-6, 11-6, 11-5)으로 가볍게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한 같은 주니어국가대표상비군인 이성배와 환상의 콤비를 이룬 복식 결승에선 천주고의 윤진용-주민혁 조를 3-1(11-8, 9-11, 11-5, 13-11)로 제압하며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마지막으로 열린 단체전 결승에선 조경환이 두번째 단식에서 마흔재를 3-0, 이성배와 호흡을 맞춘 복식에서 안상민-장호재 조를 3-0으로 꺾으면서 팀 우승의 주역이 됐다.

신생팀 여천실업고의 대과란은 하루 6시간씩의 고강도 훈련이 밑바탕이 되었다.

특히 돌산체육관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여천실업고는 오전 6시



여천실업고 탁구팀이 9일 충남 청양군민체육관에서 막을 내린 제47회 회장기 중·고학생탁구대회 단체전에서 우승, 창단 5개월만에 전국 정상에 오르는 놀라운 투혼을 발휘했다. 왼쪽부터 조지원·이재길·황태민·이성배·오성민·조경환 선수.

단뛰기와 운동장 30바퀴 돌기의 지옥훈련으로 강한 체력을 키우는데 주력해 왔다.

여고부에선 서울여상이 단체전 결승에서 접전 끝에 대성여상을 4-3으로 일축하고 최강자 자리에 오른 가운데 단식 우승은 김아영(대성여상)이 천세은(근화여고)을 3-2로 누르고 차지했다. 복식 결승에선 심미화-정슬기(영천여고) 조가 최정은-박효진(근화여고) 조를 3-1로 물리치는 등 3개 학교가 단식과 복식, 단체전 우승컵을 나눠 가져갔다.

한편 남녀 중학부 단체전 결승에선 심인중과 이일여중이 최강자로 군림하던 반림중과 화양중을 각각 4-2와 4-3으로 힘겹게 꺾는 이변을 연출하고 우승컵을 가져갔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윤옥희(예천군청)와 곽예지(대전체고), 주현정(현대모비스)으로 구성된 한국여자 양궁대표팀이 9일 중국 상하이 위안샨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9 국제양궁연맹 양궁월드컵 4차 대회 단체전 결승에서 러시아를 221-21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양궁 남녀 단체·혼성 금 '씩쓸이'

### 양궁월드컵 4차대회

한국 남녀 양궁대표팀이 2009 국제양궁연맹(FITA) 양궁월드컵 4차 대회에서 남녀 단체전과 혼성전에서 금메달을 휩쓸었다.

윤옥희(예천군청)와 곽예지(대전체고), 주현정(현대모비스)으로 구성된 여자 대표팀은 9일 중국 상하이 위안샨 스타디움에서 열린 단체전 결승에서 러시아를 221-210으로 꺾고 시상대 맨 대기에 올랐다. 오진혁(농수산협소풍)-이창환(두산중공업)-임동현(청주시청)이 한 팀을 이룬 남자

팀 역시 멕시코를 누르고 결승에 올라온 프랑스를 216-207로 여유있게 물리치고 1위를 차지했다. 오진혁과 윤옥희가 호흡을 맞춘 혼성팀은 결승에서 중국팀에 153-141의 완벽한 승리를 거두며 3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연합뉴스

# 佛 축구 박주영 굿~스타트

### 여자축구 실업리그 '별들의 별' 가린다

#### 오늘 목포 국제축구센터

#### 개막전 결승골 도움... 팀 1-0 승리

박주영(24·AS 모나코)이 2009-2010시즌 프랑스 프로축구 1부리그(리그1) 개막 경기에서 결승골을 어시스트하며 기본 총계 출발했다.

박주영은 9일(한국시간) 새벽 프랑스 모나코의 루이2세 스타디움에서 열린 툴루즈 FC와 리그1 개막전 홈경기에서 선발 출격해 전반 44분 그림 같은 패스로 네네의 선제골을 이끌어냈다. 모나코는 결국 1-0으로 승리했고 박주영은 선제 결승골을 배달하며 도움을 기록했다. 지난 2008-2009시즌 초반 프랑스 무대에 진출해 31경기에서 5골, 5어시스트를 올리며 주전 자리를 굳혔던 박주영이 2년째를 맞은 시즌 개막전에서 올린 첫 공적포인트.

특히 축구 국가대표팀에 차출된 박주영은 1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파라과이와 평가전을 앞두고 좋은 활약을 펼쳐 가벼운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됐다.

히카르두 고메스 전 감독을 대신해 새롭게 모나코 사령탑을 맡은 기 라파엘(53) 감독은 박주영을 신예 공격수 자벨 바카르와 선발 투톱으로 내세웠다.

지난 시즌 4위에 올랐던 툴루즈는 24골로 득점왕을 차지했던 앙드레-피에르 지낙을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배치해 맞붙을 썼다.

양팀은 초반부터 탄막전을 펼치며 밀고 밀리는 접전을 벌였다. 모나코는 경기 시작 4분 만에 오른쪽을 돌파한 후안 파블로 피노가 문전으로 스투페스를 찔러주자 박주영이 골지역 중앙에서 수비수 뒷공간으로 뛰어들며 오른쪽을 갖다 댔지만 한 톱포가 늦어 공이 공중으로 높게 뜨고 말았다.

지난 시즌 모나코에 1부1패로 약점을 보였던 툴루즈는 2분여 뒤 거센 반격으로 모나코의 문전을 위협했다.

박주영은 수비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공수에서 힘을 보탤고 모나코는 골키퍼 루피에의 잇단 선방으로 1점차 승리를 지켰다.

연합뉴스

여자축구 실업리그의 첫 번째 '별들의 잔치'가 10일 목포에서 열린다.

올해 출범한 한국 여자축구 최초의 실업리그인 대교농구는 2009 WK리그의 올스타전이 10일 오후 8시 전남 목포시 국제축구센터에서 개최된다. 올해 대회는 WK리그에 참가한 6개 실업팀을 중부와 남부로 나눠 치른다. 중부 팀은 현대제철, 서울시청, 수원시시설관리공단으로 구성해 한문배 수원시시설관리공단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다.

이에 맞서는 남부 팀은 대교, 충남 일화, 부산 상무 소속 선수들로 꾸려졌으며 강제순 충남 일화 감독이 사령탑을 맡았다.

중부와 남부 각각 21명씩, 총 42명의 선수가 감독 추천으로 올스타전 무대에 나서 별들의 전쟁을 벌인다.

한국여자축구연맹은 올스타전 최우수선수(MVP)에게 트로피와 상금 100만 원을 준다. 이번 대회는 목포 국제축구센터 개장 기념 경기로 마련됐다. /연합뉴스

# 태권도 시범도 점수 매긴다

### 국기원, 정식경기로 바꿔

태권도 격과 시범을 보는 관중은 송판을 조각내는 현란한 발차기에 박수를 보낸다.

누구나 한 번쯤은 접해봤을 광경이다. 그러나 격과 시범을 보고 나서 별도로 점수를 매기지는 않는다. 그저 태권도 시범을 매기지는 않는다. 그저 태권도 시범을 매기지는 않는다. 그저 태권도 시범을 매기지는 않는다.

'태권도의 꽃'으로 불리는 시범 공연은 수십 년 동안 늘 그런 식으로 진행돼 왔다. 관중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일종의 이벤트로 잠시 등장했다 총총히 들어가는 이들이 태권도 시범단이다.

그런 태권도 시범이 올해부터 '정식 경기'로 바뀐다. 태권도 본산 국기원은 오는 11월 6, 7일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

경기장에서 제1회 세계태권도시범경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단종 소유자들로 15~25명의 시범단을 구성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회로 예산, 본선, 결선 순으로 경연대회를 진행하고 상금도 준다. 1974년부터 30년 넘게 시범단을 운영해온 국기원은 태권도 시범을 기존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착각 무도'로 승화시키겠다는 야심을 갖고 이번 대회를 기획했다.

피겨스케이팅처럼 '규정 요소'를 도입했다. 쉽게 말해 반드시 연기해야 하는 기술이다.

유. 청소년부는 '뛰어 알차기', '알차기 3단계 격파', '540도 회전 1단계 격파'를 규정 요소로 정했고 성인부에는 '540도 회전 3단계 격파'와 '가위차기 5방향 격파', '장애물 딛고 돌러차기'를 필수 연기로 넣었다. /연합뉴스

### 조모컵, K-리그 '안방 참패'

K-리그 올스타들이 한일 프로축구 자존심이 걸린 2라운드 대결에서 일본 J-리그 올스타팀에 '안방 참패'를 당했다.

차범근 수원 삼성 감독이 이끄는 K-리그 올스타팀은 8일 인천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일본 J-리그 올스타팀과 '조모컵 2009'에서 1-4로 무릎을 꿇었다. /연합뉴스



10일(월) ▲아시아 농구선수권대회 12강전(대한민국: 쿠웨이트)(09:50·SBS스포츠) ▲2009 실업연맹회장기 양궁대회(14:10·KBS1)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결승(광주: 천안북일고)(18:20·SBS스포츠) ▲2009 WK리그 올스타전(19:50·KBS n스포츠)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시장흐름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산컨설팅명가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합  
Tel: 062)973-9174, 016-757-8800

**특지구합 수완지구 건축상판**  
상업용지

<b>원산지구상업용지</b> 1100평 40억(평당 470만) 200평 22억(평당 1100만) 수완택지개발지구 이주지역지 협업단지인택지 생활여객용지	<b>주유소</b> 850평 35억 600평 16억 <b>골프연습장</b> : 120억 <b>광주지역 녹지</b> 주유소부지 890평 930평 물류공장부지 2900 2600 4900평 수완동 4차산업 1200평 1800평 북구본충동 850평
---	---

**전용 가능한 금매물**  
자연녹지 : 3800평·대림차진입가 6차산업  
생산녹지 : 2800평·평동공단인근 특가상판

**우량임야**  
(연수원 부지·신광·장축사 등)  
담양 25만평 정선 14만평 보성 9만평  
보성 56만평 함평 50만평  
투자대기 수익성이 높은  
골프연습장 매가 17억 5천만원

**쌍충동 260평**  
2층주거지역 긴급처분  
투자유망 평당 450만  
화순읍 주거지역 2400여평  
공장  
하남공단 800평

**건물매도**  
27억 (보증금 3억5천 월1900만)  
19억 (보증금 1억5천 월1300만)  
투자가치 최고의 절세형 플랜

● 광주·장성권 토지·건물 ●  
투자유망물건 다량 보유 (0천만원~000억원)  
062)973-9177, 010-3825-1382  
첨단지구 국민은행 주차장으로 오십시오

**경매부동산취하매물**  
부동산 감정이 15-50% 할인 매물

**아파트·단독·다세대주택·상가·토지**

- \* 은행 채권 경매 취하 부동산 매매 \*
- \* 개인 채권 경매 취하 부동산 매매 \*
- \* 기타 채권 경매 취하 부동산 매매 \*
- \* 경매 예정 또는 진행 부동산 상담 \*
- \* 광주전남권 부동산 투자 상담 \*

경매 예정 진행 및 경매 전금대한 부동산 협의 경력 남·여 사원모집

**금호부동산컨설턴트**  
☎ 224-5959, 010-2831-1733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4가 36-3번지

**대보빌딩 임대**

★ 광주 최고 상권의 中心 ★  
[동부경찰서~전남여고 후문 사이]

- 최고시설의 신축 건물(지상 6층, 지하 1층)
- 성인 학원(외국어/공무원/일반학원) 밀집지역
- 최상의 상업 지역(아시아문화전당 입구)
- 지하철 역세권 [아시아문화전당역(구.도청역)]
- 편리한 주차 공간 (20대 동시 주차 가능)
- 최신 개별냉난방 및 내부인테리어 시설 완비

■ 임대면적 : 총별 167평 (분할임대 가능)  
■ 용도

- 1층 : 패스트푸드, 일반 매장, 당구장 (※ 1층 일부 편익점, 학원상당실 입주 완료)
- 3층, 4층 : 학원, 독서실, 일반 사무실 (※ 학원, 정독시설 시설 완비)
- 2층/5층/6층, 입주 완료(학원, 독서실)

**임대문의 062)234-1112**

**다이아몬드링**  
남성들이여, 당당해져라!

"현대남성들의 추후의 고민, 3가지 해결책!"  
1. 외수하다, 2. 버려다, 3. 잃어갔다.

"현대남성들은 생육광선, 열선, 생명의 빛이라 알려진 원적외선의 흡수가 무조건 실정입니다. 단지 몸에 지나고만 있어도 정초와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신비의 결정체, 마그마!"  
(8만원상당의 고급 사은품증정) 4층 이하 6층 실용신안 사형설치사

남자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5단계조절 마그마

듣도 보도 못한 (남·녀공용) "보물"

(한번착가 캐서 09-45호 실용신안등록 제156631호)

제조사 윙가움에서 개발한 윙가움합성외교기는 식약청 허가와 실용신안 특허를 취득한 의료기입니다. 윙가움 의료기는 자기의 달인답게 단 10분만 사용해도 여자에게 속복을 주는 윙가움에 무조건 오르는 보물외교기입니다. 말 못하는 고민 불감증에서 벗어나 멀티 윙가움을 알게되어 명기와 오부로 변신되면 부부가 함께 행복해 집니다. (농림 569-12-034626(배의자))

사담지화 02-2677-0231/02-2632-9897  
이민리 010-3518-8995  
(주)윙가움메디칼 (대리점 상담 : 010-8952-4114) www.윙가움.kr